

(최우수)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되는가

소속 : 장교교육대대 학사사관후보생(148기)

이름 : 정 준 기

국가와 개인을 구분하여 말하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국가의 성공이 곧 개인의 성공이 아니며 개인의 기쁨 역시 국가의 기쁨이 아닙니다. 이들의 말은 평화가 오래 이어질수록 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매일 지친 몸을 일으키고 광역버스와 만원 지하철에 부대끼는 사람들과 제 몸하나 가누지 못하고 바지런히 뛰어다니는 사람들에게, '국가'는 당최 모를 무언가입니다. 이들은 피부로 국가를 체감하지 못하고 머리로 국가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라며 삼삼오오 모인 술자리에서 또는 등산을 끝마친 산 어귀에서 서로 둘러 앉아 잔뜩 꾸념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들 중 하나였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가와 개인은 구분하고 분리하고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지난 세기 고통의 역사와 핍박의 시간들 그리고 책 「조국의 하늘을 날다」가 이것을 제게 말해줍니다. 제 6대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이하 김신)이 저자입니다. 김신은 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무수한 사건들을 겪은 뒤, 이것들을 하나로 엮었습니다. 시기로는 1922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입니다. 김신이 반 세기가 넘는 시간과 4개국에서 발자취를 모두 최고하여 빠짐없이 적은 덕분에, 저는 조국을 위해 제 한 몸 기꺼이 헌신한 이들의 생애와 음성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같이 전쟁과 고난의 시간이자 궁핍한 인고의 세월이었으므로, 김신의 기록 한 줄 한 줄은 제가 쉽게 감당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록과 증언 대부분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채, 그대로 놓아두고 다만 읽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신의 이책은 개인의 회고록이자 자서전입니다. 하지만 이 책을 달리 부를 말은 분명 더 있을 것입니다. 김신을 비롯해 여러 독립운동가와 애국지사, 전쟁 영웅과 의인에 관한 이야기가 책에는 가득합니다. 이들의 행적은 조국 잃은 비애이자 자주독립의 분투이며 민족상잔의 고통과 민주화까지의 헌신으로 제게 읽힙니다. 저자는 김신이지만 내

용은 김신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신은 1922년에 태어났습니다. 올해는 2022년입니다. 100년 전이라면, 아주 가까운 과거일 것입니다. 100년 전 우리에게는 나라가, 국가가, 조국이 없었습니다. 단지 '국가 없는 개인'으로서의 나라 잃은 백성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장삼이사의 삶조차도 험난했을 시절이었을 텐데, 제 몸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한 이들의 삶을 감히 짐작하기도 두렵습니다. 김신과 그의 가족 그리고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삶 역시 그러했을 것입니다. 늘 죽음이 그들과 함께 했고,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긴장과 불안감이 그들을 따라나섰습니다. 제 나라 하나를 가지는 것이 이토록 어려워 우리의 산천이 피로 물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독립'이라는 자신의 손으로 택한 사명을 그들은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공을 사보다 우선한 그들의 삶의 태도 덕분일 것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자신도 자기 자신을 잊어야 하는 외로운 투쟁의 이야기를 저는 김신의 책에서 읽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책을 자서전임에도 자서전이라고만 부르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100년 전의 이야기가 100년 후의 저에게 뜨거운 무엇인가를 툭 밀까지 솟구치게 하며 다가옵니다. 이것은 분명 그들과 제가 100년의 시간과 공백을 관통하는 무엇인가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신과 그의 가족들과 무수한 애국지사로부터 제가 느낀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몽롱히 잠에 취해 아침을 맞을 때도, 구슬담 흘리며 연병장 이곳 저 곳을 오갈 때도, 저녁 점호 후 창문을 닫을 때도 이 고민거리른 제 곁을 떠나지 않은 채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른 없는 아침 점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점호장 한 가운데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구름에 갇혀 점호장 뒤로 보이는 산은 아직 검푸르렀습니다. 하늘은 붉은 빛과 분홍색, 잿빛과 연보라가 뒤섞여 있었고 몸을 스치는 초봄의 바람에는 아직 늦겨울의 세찬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을 움크리고 저는 뒤로 돌았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었기 때문이빈다. 태극기가 손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손에서 떨어져 나온 태극기가

계양대를 타고 솟구치는 모습을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팽팽히 당겨진 태극기가 연신 펴려졌고, 짝 당겨 지고 난 후에도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바람에 마구 휘날리는 태극기가 제 눈에는 펴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애국가를 청취하는 1분 남짓한 시간 동안 쉴 새 없이 바람에 구겨지고 펴지는 태극기를 보던 중, 저는 아!, 나지막히 신음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껏 본 어떤 태극기보다 일그러졌던, 바로 점호장의 저 태극기가 지난 몇날 며칠 계속된 고민의 정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태극기'였습니다. 여기서의태극기는 평소 보고 만질 수 있는 태극기가 아닙니다. 태극기가 아니라 '태극기를 바라볼 때'라고 말하는 편이 더 제 의도에 알맞을 것입니다.

김신과 그의 저서를 읽으며 저는 궁금해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떤 마음이 이들을 한평생 고난의 길로 견도록 하게 했는지 말입닌. 책상 앞에 안장 있을 때에는 풀리지 않던 이 고민이 어느날 아침 점호에서의 태극기 게야 때 풀렸습니다. 태극기는 언제나 태극기일 것입니다. 오늘의 태극기는 어제의 태극기이자 내일의 태극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태극기가 항상 태극기라면, '태극기를 바라본 때'드는 감정과 생각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이것은 100년 전의 김신과 100년 후의 저를 시간의 공백에 구애 받지 않고 하나로 엮을 수 있는 열쇠이자, 무수한 순국선열과 수많은 애국지사 와 저의 눈높이를 맞추는 길입니다. 태극기 앞에서는 이들과 하나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태극기가 펴려지는 풍경을 목도할 때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고양감에 주먹을 움켜 쥐게 됩니다. 그러면 100년 전 태극기를 바라보던 이드르의 마음 역시 저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극기를 통해, 태극기를 바라보며, 태극기를 느끼며 이들과 저는 비로소 '우리'가 됩니다.

우리의 태극기는 단 한 가지 모습만이 아닐 것입니다. 태극기를 바라본 때의 마음만큼은 서로 전배 없더라고100년 전 이들에게는 저마다의 태극기가 있었을 것이고 100년 후 저에게는 저만의 태극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저의 태극기 사이에는 밤 하늘의 별 만큼이나 많은 태극기가 자리해 있습니다. 태극기는 그렇게 이어집니다. 앞의 태극기가 뒤의 태극기에게, 그리고 또 다른 뒤의 태극기에게, 그렇게 이어진 정신은 시간의 간극을 뛰어넘어 서로 다른 이들에게 서로 같은 마음

을 심어줍니다. 김신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순국선열의 태극기가 세계  
이어지기까지는 여러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이책선'을 외치면서도 민가  
를 피하기 위해 조종간을 놓지 않는 고(故) 심정민 소령, 방탄모에 불이  
붙은 채로도 대응사격에 전념했던 임준영 상병, 그리고 미처 일일이 열  
거하지 못한 수많은 거룩한 이름들이 떠오릅니다.

김신을 비롯한 수많은 순국선열이 저마다의 태극기와 마음으로 지켜  
내고 보호해낸 이 당 조국에서 저는 태어나고 자랐으며 길러졌습니다.  
이들의 드넓은 헌신과 장대한 인내를 머금고 뿌리내린 대한민국의 어엿  
한 일원입니다. 저 역시 선배님들이 그러했듯, 저의 태극기와 이들과 헌  
신을 보여야 하는 때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비로 이것이 독후감으로  
시작한 이 글을 자기고백으로 미치는 까닭입니다.

(우수) to. 김신

소속 : 장교교육대대 학사사관후보생(148기)

이름 : 곽유현

평안하신지요. 6.25당시 T-6를 타며 피난 가라는 편지를 뿌리셨죠. 당신의 애민정신덕에 서울로 피난 해온 제가 장군님께 고마움을 전할 때,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 웃음을 품에 안고 치열히 공부하며 현재 '공군 장교 교육대'에 입소 하였습니다. 또한 들어와 장군님의 회고록을 보며 '공군정신'을 배웠습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배운 '도전', '헌신', '전문성', '팀워크'를 자랑스러이 읊조리고자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첫째 '도전'입니다. 知其不可爲而爲之. '아니될 것을 알면서 그 그것을 해내고자 끝내 노력하는 정신'이 도전입니다. 장군님의 직언은 늘 성패로 이리저리 따져보고 계산하여 진퇴를 가늠하지 않고, 빠르고 날카롭게 적진을 격파하셨습니다. 4000피트 상공에서 강하게 1500피트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장면이 그야말로 통쾌하였습니다. 고도가 낮은 탓에 폭탄 파편에 맞아 위태한 상황이었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여 이뤄낸 쾌거는 본받아야 할 공군의 정신입니다. 치열한 생존을 위해 살아온 저로서는 아직 그런 도전이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장면을 통해 목숨보다 앞선 도전, 그리고 성공적인 임무완수를 하는 공군이 되고자 다짐합니다. 더불어 공군 참모총장 시절 일본군 출신 장교의 협박에 웃으며 하신 대답을 기억합니다. "최후의 5분까지 힘을 사용할 것이다. 임기 이후의 일은 걱정하거나 무서워 하지 않는다"는 또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일본 장교의 협박이란 비열한 도전에 가소로이 웃으며 당당한 도전정신으로 맞서는 것은 제 심장을 뛰게 하였습니다. 도전은 곧 최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의 삶은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쩌나, 내게 불이익이 있으면 어쩌나 싶은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두려움은 비열한 도전에 정의로 맞서지 못함을 절감합니다. 장군님을 닮아 비열한 도전에 흔들리지 않고 웃으며 도정 정신으로 응대하는 공군이 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둘째 '헌신'입니다. 헌신은 곧 생의 전반에 선택의 잣대입니다. 13년간

외로운 외국생활 끝. 고국땅을 밟으며 하신 말씀을 되뇌입니다. "13년만에 이땅을 밟은 기쁨은 곧 13년간 배운 항공기술로 국방에 헌신의 다짐입니다." 이미음은 장군님이 기밀에 못이겨 다리밧을 비행할 때, 국토부장관으로서 세금한푼 헛되이 쓰지 않으려 할 때, 잘못된 것을 대통령께 곧이 곧대로 보고할 때 모든 순간 작용하였습니다. 그런 당신이 이 시국을 보면 통탄 할 듯 합니다. 요즘시대의 젊은이들의 마음엔 '조국'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단지 스스로만 마음에 가득차 사사로운 사익에 목숨 받칩니다. 저 마저도 그런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게도 조국을 그리워하는 열망,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곧 있을 힘겨운 훈련에 조국의 안보를 위한 하나의 발걸음이니 굳건히 이겨내고자 합니다. 장군님의 이리저리 치이는 13년간의 외국생활이 조국이라는 신념하나로 헌신되었고, 생애 모든 선택의 잣대가 되었듯 말입니다.

셋째 '전문성'입니다. 장군님의 13년 훈련은 중국, 인도, 미국 등 정신 없는 여행이었습니다. 더불어 더움, 장티푸스, 인종차별 등 배움의 휘방꾼들이 득실거렸죠. 그러나 장군님은 한국인 조종사라는 자존심 하나만으로 악착같이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저는 그 노고의 깊이를 헤아리진 못하지만, 모든 배움은 '한국인조종사'라는 자존심에서 출발하였고 결국 그리로 이끌었습니다. 저의 삶은 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에 교생으로 나간 실습에서 한아이는 제게 열의로 가르쳐주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타하지 않고 배우고 배워서 가정에 보탬이 된다고 한, 어떤 아이의 동심을 기억합니다. 13년의 고된 훈련을 견뎌 장군님의 열정은 순수한 동심과도 같습니다. 제가 출발할 곳이 바로 이곳 동심입니다. 흘롱하지 않아도 이곳 훈련소에서의 악착같이 배우고 또 배울것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전문성 있는 장교가 되겠습니다.

넷째 '팀워크'입니다. 그것은 동료의 생명을 지키는 경쟁력입니다. 미군과 합동작전 때에 팀워크의 부재로 적군식별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결과는 참혹하게도 미공군이 피난가는 국민에게 네이팜탄을 발포하게 되었습니다. 장군님께 피난가라는 편지를 받고 저와는 달리 팀워크 없는 미군의 네이팜 탄을 받고 누군가의 결말은... 죽음이었습니다. 이 억울함을 딛고 '이동식 공군전광침공통제관'을 세우고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 한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팀워크는 효율을 너머 생명을

좌지우지합니다. 지시에 대한 바른 이해와, 동료를 믿는 것은 제 상상이상의 무게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휘관 즉 장교일 때 더 큰 무게도 다가옵니다. 부대를 운영해야 하는 사람이지만 부대원의 사기를 돋구기 위해 전장의 가장 앞에서 조종하던 장군님의 마음을 열 봅니다. 마치 나니아연대기에서 "권위는 가장 앞에서 가장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자에게 있다"고 한 말을 삶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제가 장교가 된다면 병사의 사기를 면면히 살피겠습니다. 또한 장군님처럼 가장 앞장서 가장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권위로 실현할 것입니다. 계급을 이용해 팀원을 억누르기보다 더큰 희생정신으로 팀워크를 높여 경쟁력 있는 소대를 꾸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신 장군님을 통해 '안보'에 관하여 고민하였습니다.

일제 강점기, 6.25전쟁, 독재정권을 거치며 다양한 위협에 온몸으로 맞서 싸우던 장군님의 마음과 몸은 아마 흉터투성이겠지요. 또한 그것은 자랑스런 훈장일 것입니다. 국가의 땅을 밟음에, 전쟁의 위협이 멈춤에, 부강한 나라의 발전에 가슴뛰게 기뻐하신 장군님! 제게도 그런 기쁨과 눈물을 주십시오! 장군님의 안보관은 직접 나라를 잃어본, 포탄의 열기 속의 위협에서, 정의가 부러진 현실에서 정립되었습니다. 즉 안보가 위협 받을 때 안보를 향해 다짐하셨습니다. 저의 짧은 인생에도 그런 위협이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국가적인 경제난, 천안함 사건, 코로나로 인한 국가의 마비, 국정농단 사건 등 가슴을 꿰게 하는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5000년 역사는 수난과 긴장의 역사, 즉 안보를 위한 끝없는 투쟁의 역사이니 가슴속 무언가 지키기 위한 열망이 내재되어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맞서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충성심과, 용기, 숭고한 애국심을 지닌 군인의 몫입니다. 장군님이 대사관, 장관, 국회의원 등 직책을 거치며 안보를 우선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혹독한 훈련을 통해 굳은 심지를 지닌 군인이었기 때문임을 단언합니다. 군인으로 목숨걸며 자리를 지킴은 곧 평생을 따라다니는 신념이 됨을 배웠습니다. 저도 장군님과 같은 군인이 되어 걱정하지 않는 것에 걱정 않고, 힘쓸것에 힘쓰며, 매사에 신중을 가하는 사보다 공을 앞세우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대한민국의 국민의 DNA에는 지키기 위한 열망이 내재

되어 있습니다. 5000년 역사가 자랑스러이 가슴에 품음직 함은... 포탄의 열기속으로 겁먹지 않고, 적진의 도전에 온 몸으로 맞서는 장군님과 같은 호국열사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삶이 자연스레 앞선 5000년을 이어받아 이후 5000년을 지켜낼터이니 앞서간 당신이여! 묵묵히 지켜봐 주십시오!

(우수) '조국의 하늘을 날다'을 읽고

소속 : 장교교육대대 학사사관후보생(148기)

이름 : 이 은 총

걱정과 기대를 가득 안고 훈련소에 들어와 정신 없는 시간을 보내다가 잠시 여유를 찾고 한숨 돌릴 때 쯤. 내가 마주한 것은 책상 위에 놓인 한권의 파란 책이었다. 그 책은 바로 김신 장군의 회고록<조국의 하늘을 날다>이다. 아마 많은 이들이 공감할 것인데 한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 보는 것 그것도 평소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던 사람의 인생사를 두꺼운 분량의 글로 들여다 본다는 것은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는 일이다. 이러한 공감은 나로 하여금 나의 손이 그 책으로 향하는 것을 더디게 했다. 그러나 격리간의 무료함은 나의 손이 책을 향하게 만들었고 책을 다 읽어갈 무렵에는 단순히 무료함을 달래기 위함이었던 나의 독서 목적의식에 한 없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고 동시에 가슴 벅차고 큰 설렘을 끌어안고 깊은 감동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 책을 통해 내가 마주한 많은 감동과 교훈을 다 나의 글에 녹여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 중 몇 가지를 짧게나마 나누고자 한다.

1. '꿈'을 꾸며 '꿈'을 가지고 '꿈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책을 읽으면서 김신 장군의 일생을 잘 드러내는 단어는 '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어린시절의 삶은 그 시절을 살았던 대부분의 삶이 그러했듯이 풍요롭지 못한 삶이었다. 더불어 "독립운동가(백범 김구)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은 그를 더 큰 배고픔과 외로움의 상황에 놓이게 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환경에 쉽게 전복되는 인물이기 보다는 배움과 성장의 삶을 사는 인물이었으며 그 결과는 그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공군참모총장, 장관, 총체적으로는 존경과 신뢰를 받는 선생의 자리였다. 환경에 전복되지 않고 이러한 삶을 살아낸 비결은 무엇일까? '꿈'이라고 책은 대답해준다. 여기서 '꿈'은 단순히 "~하고 싶다"라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 의미이기 보다는 여기에 더해 "~해야 한다"라는 소명 의식까지 겸비된, 이상에 더해 목적의식이 뚜렷한 강한 의미의 '꿈'을 이야기 한다. 그는 어릴적 소풍에서 조종사의 꿈을 가지게 되고 청년 시절에는 중국 공군군관학교에 들어가 막연한 이상의 꿈을 실제로 끌어온다.

물론 이것도 훌륭한 것이지만, 여기서 멈추었다면 '평범한 조종사(군인)' 그의 삶을 '훌륭한 조종사'의 반열에 오르게 한 힘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책의 내용 중 그가 중국에서 훈련과 복무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 오려 할 때 그의 아버지가 그가 들어오지 않고 미국으로 가서 더 교육 받고 공부하는 것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해야 하는 일임을 강조하며 귀국을 만류할 때 서운했으나 이내 그것이 자신의 역할임을 깨달았고 그것을 중심으로 그에게 주어진 것들에 열심이었던 것을 회상하고 전하는 대목에서 이 교훈은 잘 드러난다. 여기서 더 나아가 그로 '훌륭한'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는'의 반열에 오르게 한 한 가지가 더 있다. 그것은 바로 '나로 하여금 다른 이들의 꿈을 꺾게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다. 책 속에는 김신 장군이 어린이들과 청년들을 대하는 자세와 일화에서 이것이 잘 드러난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책은 나에게 이렇게 가르쳐준다. "누구나 꿈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거기에 더해 소명의식의 '꿈'을 가지고 그 구체적 '꿈'을 다른 세대가 꾸게 하는데 열정을 가져라. 이것이 우리의 삶을 활력있게 할 것이다."

## 2. 도전하고 헌신하라

김신장군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발전하고 기억하게 될 또 다른 키워드는 '도전'이다. 그의 삶을 통해 '도전'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그의 도전이 성공했거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책은 바로 그러한 도전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다. 사관학생, 장군, 외교관, 장관 등 수 많은 역할과 직무가 끊임없이 그에게 주어졌다(도전 되어졌다) 김신장군의 그러한 도전의 직전에 노력, 열정, 성실성을 통해 그 도전에 전복되지 않고 그 도전을 정복함으로서 도전 받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한 도전적 삶의 지속성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김신 장군이 말은 직무수행에 있어 일관되게 가지고 있었던 국가와 국민 즉, 아버지(백범 김구)로부터 배운 사랑하는 것을 위해 자신의 노력, 시간, 마음을 기꺼이 내어주는 마음 때문이다. 자신이 사랑하고 가치있다고 여기는 것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하지 않는가? 책을 통해 김신장군은 바로 그 헌신을 가르쳐 주고 있다. 특별히 이 가르침은 지금의 '나'자신에게 깨우치는 바가 매우 컸다.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친구들 그리고 그들과의 시간인 '자유'를 위해서는 국가는

굳건해야 한다. 그리고 나는 장교후보생으로서 '굳건한 국가를 위해'라는 목적에로의 도전 가운데 놓여 있다. 이것에 도전 받을 것인지 도전할 것인지를 갈림길 가운데, 장교 후보생으로서,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바른 태도와 의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며 내가 지금의 훈련소에서 그리고 장교로서 살아갈 앞으로의 삶에 있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 준 것에 있어 김신 장군의 삶과 이 책은 좋은 교본이 된 것 같다.

### 3. '나'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서 해야한다(책임감을 가져라)

꿈을 꾸는 것, 꿈을 가지는 것, 꿈을 전하는 것, 그리고 도전하고 헌신하는 것, 어쩌면 누구나 시도는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는 것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 맡은 바를 끝까지 완수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책임감'이라고 한다. 우리 모두는 작게는 자기자신의 인생의 주체로서 가지는 자신에게의 책임감에서부터 여러 가지 삶에서의 직무와 지위에 따른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삶은 '책임감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삶을 잘 사는 것은 책임감을 가진 삶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별히 나와 우리는 지금은 장교 후보생으로서, 앞으로는 장군이자 군인, 간부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자리에 있으며,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통 그러하듯이 리더십의 자리라 막중한 책임감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쉽게 무너지게 하는 것은 '불가능'과 '낙담'의 장벽일 것이다.

'불가능'과 낙담'이라는 근심과 염려 앞에 불안한 우리에게 김신 장군은 책을 통해 선배로서 진심어린 조언과 훈계, 위로를 전해주고 있다. 그는 '「논어」의 구절을 가져와 우리가 가져야 할 정신에 대해 가르쳐 준다. 知其不可爲而爲之(지기불가위이위지) "아니 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해내고자 끝까지 노력한다" 김신 장군은 이러한 정신·자세를 그이 아버지(김구)로부터 보고 배웠으며, 그가 끝까지 그의 꿈과 도전을 지키며 살던 기회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그렇다 아무리 멋지고 많은 꿈과 열정 변화와 혁신의 갈망이 있어도 실천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실천을 지속하고 완주하는 힘은 정신력과 마음가짐에서 온다. 당장 앞에 나에게 장교후보생으로써 훈련과 그 이후 장교로서의 직무수행에의 도전이 있다. 그 도전에는 기대와 더불어 수많은 두려움도 있지만 포기보다는 책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의

소명을 지키고자 하는 결단을 한다. 그리고 이 작은 결단이 큰 현실이 되어 나라의 미래에 큰 힘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책을 다 읽고 나서 책을 통해 배운 김신 장군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다시 생각해 볼 때면 <장교의 책무>가 떠오른다. 그러면서 “그는 참 장교였구나”라는 경의를 조용히 표하게 되고 후보생인 나에게 힘이 되기에 감사하다. 마지막으로 책을 다 읽은 날, 일기에 적은 나의 짧은 소감으로 독후감을 마무리 지으려 한다.

루카치의 <소설의 이름>의 한 글귀가 떠오른다. “별이 빛나는 창공을 보고 갈수가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의 지도를 읽을 수 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라는 글귀다. 김신 장군의 회고록을 다 읽고 난 지금 위 글귀는 나에게로 향하는 직접적인 질문으로 다가왔고 나는 다음과 같은 대답으로 무무리 하려 한다. 김신 장군의 삶을 통해 새로운 결단과 기대를 함 속에서 나에게로 와 별이 된 그의 삶을 통해 오는 나는 그 시대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조금이나마 깨달았다. 그리고 그 행복한 시대를 경험할 많은 이들을 위해 누군가의 밤하늘의 별이 되어 길을 밝히는 지도가 되어야 겠다.

(우수) From. 김신

소속 : 소속 : 장교교육대대 학사사관후보생(148기)

이름 : 문 선 재

친애하는 문선재 장교후보생에게.

질지냈는가? 나는 여든이 넘고 이제야 숨을 돌리네. 최근에 내 딸아이가 어여쁜 손녀를 낳았네. "할부지요"하며 내 손을 잡는데 '김신' 보람찬 인생을 살았구만! 하며 혼잣말을 되뇌이지. 참 자네의 아버가, 낳은 첫째에게 '고추가 달렸다'며 내게 자랑하던게 엇그제 같네만, 그 사내가 장성하여 벌써 장교 후보생이 되다니. 헌데 왜 군인이 되었나? 자네에게도 혹시 그런 몽클함이 있나? 자네 아버가 장남인 자네를 꼭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던 그런 몽클함 말일세. 내 일생, 김신의 삶도 그런 '몽클함'의 연속이었네. 한번 들어보겠나?

내가 아기일 때 아버지는 독립운동으로 가족을 돌볼 겨를이 없으시고, 어머니는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네. 그덕에 할머니 손에만 자랐어. 이리저리 연명하며 고달팠지만 내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네. 어렸던 적에도 '나라잃은 슬픔'이 '아비없는 슬픔'보다 크지 않았어. 오히려 조국을 되찾는 아버지의 바쁨이 자랑스러웠지. 어느 정도 자랐을 무렵 중국 땅에서 일본의 폭격을 받은적이 있네. 친구가 다리를 잃기도 하고, 이웃집이 불타기도 했어. 힘 없는 내가 원망스러웠네. 겨우 5학년이었지만 그들을 지키지 못했다는게 분해 울음을 꼭 삼켰지. 한해가 지나고 친구 아버지의 도움으로 수학여행에 갔어. 평양서 모란봉, 미림박물관도 멋졌지만, 미림 비행장의 비행기는 나의 가슴을 뛰게 해주었어. 눈부신 하늘을 가르며 비행기 위로 펄럭이는 머플러와 커다란 안경! 가슴이 뛰었네! 그러면서 묘한 감정이 다시 피어났어. 바로 다리 잃은 친구를 지키지 못한 그 분함, 그 분함의 해결책이 바로 내눈앞에 활공하는 비행기였네. 그것은 '누군가를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이었지. 집으로 오는 내내 수첩에 비행기를 그리고 또 그렸네. 몽클함을 어딘가 새겨두었지.

수년이 지나고 아버지의 도움으로 중국 공군군관학교에 입학했네. 막상 꿈을 이룬 듯 지냈지만 훈련은 길고 조종사는 멀어보였네. 그때마다

책상 한켠에 송곳으로 '흔들리지 말자'를 파고, 되뇌었지. 가장 높은 힘에는 가장 높은 댓가가 따른다는 걸 실감했네. 그 누구보다 어려운 길은 그 누구보다 '전문적'이란걸 뜻하지. 문선재 자네도 나를 따라 공군에 왔으니 어떤 훈련 앞에도 흔들리지 말게? 하늘 그곳은 어느 곳보다 흔들리기 쉽지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어느 부대보다 강력하단걸 기억하게.

20대 그 시절은 조국을 품을 때이지. 나라가 빼앗긴 애절함은 광복 이후에도 깊이 남았네. 1947년 긴여정 끝에 밟은 일제강정기와는 다른 땅이었네. 밟자마자 난 알았지. 이곳이 내 나라, 내 겨레, 내가 태어나 내가 죽은곳. 바로 '헌신'일세. 다른 이유로 이 공지를 설명할 수 없네. 또 하나의 몽클함이지. 아니 어쩌면 할머니와 친구를 지키겠단 그 마음의 연장선인듯해. 친구를, 가족을, 조국을 지키기 위해선 스스로만을 위해 살 순 없네. 자네도 군인이니 못 그러하겠지? 자네도 무엇을 지키고 싶나? 지키기 위해 목숨도 헌신할 수 있나?

한국전쟁 당시 난 늘 목숨 바칠 기회 속에 살았네. 그토록 원하던 태극기가 달린 비행기를 타며 조국의 하늘을 날았지. 1월 15일 매섭게 추운날 나는 과감한 시도를 하였지. 후 아직도 가슴이 저릿하군. 3000피터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안전을 버리고, 1500피터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위험에 제 발로 뛰어들었지. 연기를 가르며 탈출하다 안도하는 그순간 꼬리에 폭탄 파편에 맞아 몸통부분이 날아가렸지. 우여곡절 끝에 돌아온 진지에선 전우들은 환호로 나를 맞아주었지. 과감한 시도덕에 철교와, 대공포진지, 병커등을 파괴하는 큰 성과를 얻었네. 나는 아직도 그 선택에 후회가 없어. 군인이라면 무릇 '도전'하기 마련이지. 그 댓가가 목숨이라도 말이야. 전쟁이 아니라도 그런 용기는 군인을 군인으로 만들지. 훈련이 3개월이라고 했나? 훈련은 곧 스스로에게 도전함이니, 두려움을 딛고 떳떳한 장교가 되어보게. 자네도 언젠가 과감해져야 할 순간 겹 때문에 좌절되기 싫다면 3개월간 도전에 도전을 반복하게나. 그것이 공군의 정신이니까.

내 몽클함은 마냥 자랑스러움만 가득하지 않다네. 흉터와 깊은 실수도 있어. 긴급히 투입된 미군과 우리는 '팀워크'가 영 짱이었네. 당연하겠거니하고 넘겼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네. 미군조종사에게 아군을 구별하는 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네이팜 탄을 피난민에게 던졌네. 하늘에

서 동료가 살려 달란 비명을 눈물과 함께 삼켰어. 작게 들린 비명을 내 온몸을 진동 시켰네. 더 이상 이런 일을 막기 위해 '공군전방항공통제관'을 적극 추진했지. 팀워크는 아군을 아군으로 만들어주지. 팀워크가 없는 팀은 마치 적군과도 같아. 이런 공군의 경쟁력을 실감하고 소통과 사기를 우선시 하는 지휘관이 되었네. 사기가 꺾인 부하들을 위해 직접 전투에 참여하곤했어. 전투에 일선에서 명령하고 소통하는 지휘관은 부하의 겁을 물리칠 수 있네. 이는 곧 겁먹은 적군을 물리치지. 물론 나의 상관에게 혼나기는 했지만 말이야. 장교는 괜히 장교가 아닐세. 지휘관이란 무거운 무기를 얼마나 잘 쓰냐에 따라 팀워크가 달라지네. 스스로를 지키기 보다 너의 곁의 사람을 지킬 때, 모두가 널 지켜줄거야. 가장 높은 그곳은 결코 혼자가 아니기에 전될 수 있네.

이렇듯 오랜 세월 김신, 나는 몽클함을 지켜왔네. 단언하건데 내 삶은 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 삶이었어. 자네가 군인이라니, 참으로 자랑스럽네. 공군으로서 자네가 지키는 나라가, 그 하루의 안보가 수많은 생명을 지키는 것이니 말이야.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져가네. 안보를 꺾으려는 세력이 점점 늘고있어. 핵, 경제테러, 각종질병, 북한의 도발 등 내가 맞서 싸운 적들보다 곱절 강력할거야. 나 김신, 나의 손녀, 자네의 가족과 조국은 자네에게 달렸네. 도전, 헌신, 전문성, 팀워크를 겸비한 공군 장교가 되길 바라네. 꼭 그래야만 하네. 몽클한 가슴을 안고, 가장 강한 힘으로 조국을 지켜주게나!

슬슬 손녀가 보채는구만. 내가 꼭 동화책을 읽어줘야 잠에 들거든. 내일생 지킨 안보를 이젠 자네에게 맡기네. 난 손녀와 잠을 청하러 가보겠네.

2022. 3. 10 김신으로부터.....

(장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으로 본 김신장군의 애국심

소속 : 소속 : 장교교육대대 학사사관후보생(148기)

이름 : 김준권

마키아 벨리의 '군주론'으로 본 김신 장군의 애국심

-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본 김신 장군의생애 -

왜 군주론인가?

아무런 도전 없이 조국의 독립과 생존, 발전에 일생을 바칠 수 있는가? 독립운동가의 자손으로 태어나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살아 온 그의 인생을 보면 실로 비범함을 엿볼 수 있다. 제자 백가와 군주론을 보면 비범한 인물의 생애는 특별한 출생과 올바른 결정의 연속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백범 김구의 자손으로 태어났고, 독립 후 바로 귀국하기보다는 타국에 남아 조종술을 익히려는 선택을 했다. 그는 또한 그를 음해하는 세력에 의해 이승만 암살 미수 사건의 공범으로 몰릴 뻔한 작전에 직접 참가하는 모습을 보여 부하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에 공한 하였고, 뛰어난 용맹으로 저고도 폭격을 실시해 '승호리 철교 폭파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가 위험한 작전에 포함되면 때마침 북한 병사가 귀순하는 등 운명 또한 그를 도와 주었다. 이처럼 '군주론'에서 말하는 김신 장군의 영웅적 생애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독립의 기쁨을 뒤로한 채 가치있는 선택을 한 김신 장군

1945년 우리나라가 독립의 기쁨을 맞이했을 때 김신 장군은 누구보다도 빠르게 귀국길에 오르고 싶어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조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군 조종사의 길을 걸기로 결심했다. 조종사 사망 원인중 가장 큰 원인은 비행훈련이었던 그 시절에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이다. 마키아 벨리는 선택과 사려 분별을 통하여 군주가 스스로의 자질을 키울 것을 당부하고 있다. 여기서 자질은 품성, 기술, 체력 등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한다.

어떠한 계책이나 타인에 의존하기 보다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것은 오로지 군주 자신의 자질에 의존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김신 장군은 자신의 선택으로 자질을 키워 공군 비행훈련, 한국전쟁, 또 국토

부장관시절 제정한 여러 정책들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쳤다. 그의 결단력과 자질을 본받아야 한다.

전쟁의 비극 속에서 발휘되는 그의 자질 -승호 철교 차단 작전-

자고로 영웅은 난세에 나타나는 법이다. 장군의 경우도 그렇다. 위기속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그는 출격 횟수만 채우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제도 때문에 위험을 감수해 작전을 수행하지 않는 미국 조종사들의 상황을 파악해 1500피트라는 저고도에서 한국 공군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마키아 벨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용맹 보다는 외국군에 의지하는 것이, 외국군 보다는 국군에 의지하는 것이 낫다." 용병은 한 덩어리도 아니고 급료를 지급받는 집단일 뿐이고, 외국군은 그 나라의 명령만을 듣는다. 때문에 승리를 바라는 군주라면 용병과 원군의 활용을 피하고, 국군을 육성하여 침략에 대비해야 한다. 용맹함으로 무장한 국군 육성의 필요성을 장군은 알았을 것이다. 그는 공군 군관학교와 미공군에서 배운 기술로 조종사 육성에 힘썼으며, 한국 공군 단독 출격 작전을 이끌었고, 오키나와 미군기지에서 F-15기종을 직접 인수해 왔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그렇다. 평화는 외국군과 용병 만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다. 용맹함과 충성심으로 가득찬 국군의 양성이 필수적이다. 최근 전쟁이 발발한 우크라이나도 미군의 보호아래 러시아를 상대로 자주적인 정책을 펼치다 미군 철수로 인하여 고전하고 있다.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우리군대, 국군밖에는 없다.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외세의 침략에 맞설 수 있게 항상 무너지지 않고 날이 선 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외교무대와 국내 정세에서 보여준 그의 자질

오늘날 공직자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자질은 바로 '청렴함'이다. TV나 신문에 연일 보도되는 비리. LH사건 등 청렴하지 못한 공직자들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있다. 김신 장군에게도 여러 가지 청탁들이 있었다. 김신 장군에게 자신의 선거 홍보물을 군 수송기로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한 선거후보가 그 중의 한 예이다. 그는 기지를 발휘하여 비행기 엔진에 이상이 생긴 척 수송기에 실려있던 공보물들을 바다에 흘려보냈다. 자신의 청렴한 소신과 군인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은 지키되, 면전

에서 얼굴 붉히며 청탁을 거절 할 수는 없으니 최대한의 기지를 발휘한 것이었다. 이 일로 그는 국방위원회에서 농수산위원회로 보내졌지만 큰 피해 없이 소신을 지킬 수 있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는 때로는 사자처럼 용맹하며 때로는 여우처럼 기지를 발휘해 위험을 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김신장군은 지혜롭게 처신하여 청렴함과 그의 소신을 지킬 수 있었다.

교통부장관 재임 시절 김신 장군은 조종사 처우 개선과 철도 확충과 현대화, 고속도로 이용수칙 개정을 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 그 중 고속도로 이용안을 개정 할 때 였다. 당시 고속도로에는 고속도로 통행 특허를 받은 고속버스만 이용 할 수 있는 규칙이 있었다. 그는 국가의 동맥인 고속도로에 다른 버스나 트럭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자 특허를 받은 회사들이 자신들의 이권에 침해된다며 완강하게 버텼다. 그는 통행을 할 수 없는 이유와 해야 하는 이유를 들어 설득해 낼 수 있었다. 마키아 벨리는 새 제도를 제정할 때 개혁자는 구 질서 하에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고, 새 질서 하에서 이익을 누릴 자들은 단지 미온적인 지지를 보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익을 누리던 자들은 이익을 빼앗기기 때문이고, 새 이익을 누릴 자들은 이익을 두 눈으로 보기 전에는 신뢰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검토키 위해서는 개혁을 할 때 개혁자가 지역 혹은 남에게 의존하는 여부가 중요하다. 김신 장군은 자신의 뛰어난 자질을 인정받아, 자리에 올라 개혁을 실시한 것이므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중상모략에 대처하는 그의 자세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그를 우아 매려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는 동요치 않았다. 그는 언제나 충성을 다했다.

김신 장군이 전하는 시대적 가치

김신 장군에게는 영웅적 자질이 충분했다. 일제 시대와 한국전쟁을 거쳐 군사 정권과 현대에 이르기까지 존경스럽다. 살아있는 역사이지 영웅인 김신 장군의 생애를 본 받아야 겠다.

(장려) 공자의 가르침에 입각한 김신의 생애와 공군 장교의 자세

소속 : 소속 : 장교교육대대 학사사관후보생(148기)

이름 : 김 재 민

이 책을 읽고 내가 집중한 부분은 그 무엇보다 '공자'라는 인물의 언급이었다. 실제로 김신 장군께서 가장 많이 언급한 인물은 김구도, 다른 독립운동가들도 아닌 공자였다. 감히 예상하건데 김신 장군께서는 알게 모르게 공자의 유교사상에 영향을 받았으리라 추론한다. 왜냐하면 안신학교에서 5학년을 마치고, 중국 난징에서 1학년부터 소학교를 다시 다녔기 때문이다. 특히, 심리학에서 인격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2차 성장, 12~14세 때라고 평가한다. 김신 장군께서는 마침 이 시기에 중국의 교육과정을 따라 공자의 '논어'를 수학했으니, 그 가르침은 남들보다 더 크게 가슴 속에 새겨졌을 것이다. 지금부터 김신 장군의 일화를 바탕으로 그의 철학과 공자의 말씀을 비교 분석해보자. 먼저 할머니를 모시는 일에서 부터 난징 폭격 대피와 충칭으로 가는 피난길처럼 목숨이 오가는 일까지 할머니를 먼저 모셔 함께 움직였다. 심지어 난징 폭격 때는 집이 흔들릴 정도로 폭탄이 가까이 떨어져도 할머니께서 움직이지 않으시자 그도 옆을 지켰다. 이러한 자세를 공자는 부모에 대한 존경과 순종의 표현이라 했다. 어려서부터 할머니 손에 자란 그의 입장에서는 할머니가 곧 부모라 볼 수 있고, 할머니께서 마지막까지 "신아! 신아!" 찾으시는 모습으로 김신 장군께서는 효를 다했다고 유추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할머니에 대한 이상화를 통해 충성심과 수용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이 책에서는 내용과 맥락에 관계없이 할머니의 일화 및 대단한 점 등이 자주 언급되는데 이상화한 무언가를 언급할 때 공통적으로 보이는 대표 특징들과 일치한다. 할머니께서 별세하신 이후 김신 장군의 충성심과 수용적 태도의 대상은 국가로 나아간다. 마지막으로 자아성찰적 서술 방식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틈틈이 반성을 한다거나 과거의 선택을 부정했을 시 그 결과는 어떨지 고민한 흔적이 책 전반에 깔려있다. 즉, 가족에 대한 효도, 국가에 대한 충성, 자아성찰을 만족하여 공자의 '인의예지(仁義禮

知)를 충족한다.

그렇다면 공자의 영향을 받은 김신 장군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이 책을 쓰셨는지 분석해보자. 과연 김신 장군께서는 공자의 가르침. 그 모습 그대로만 살아오셨을까?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가 본격적으로 공자의 사상에 본인의 사상을 더해 인격을 변화시키고 완성해 나간 시기가 있다. 바로 20세 이후, 이 시기이다. 중앙대학 부속 공급중학교 졸업하고, 서남연합 대학에 입학한 그는 말라리아, 빈대와 장티푸스 등 여러 질병에 고통을 심하게 겪었다. 이 죽음으로 넘나드는 고통을 말미암아 환골탈태 했는지 이 시점을 기준으로 수동적 태도에서 능동적 태도로 행동에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 예로 이전에는 할머니께서 별세하신 충격으로 아버지가 시키신 일만 하거나 거주지 근처 학교에 입학해 배움을 이어나가는 등 유유자적한 모습이 강했다. 그러나 환골탈태 이후 건강해진 몸과 마음에도 변화가 생긴 듯 비행기 조종사라는 어릴 적 꿈을 쫓아 중국 공군군관학교에 입학하는 등 자신의 의지를 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국에서 비행훈련을 완수하고 비행기 조종사가 되어 돌아온 김신 장군은 안정과 현상유지, 예가 중요한 유교 사상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노선을 밝기 시작했다. 돌아다니는 장교들을 혼내주기도하고, 배고파하는 전우들을 위해 동맹국 미군의 개를 잡아먹기도 했다. 이는 국가의 전력을 훼손한 경우일 뿐더러 동맹국 군인들과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는 경우로, 국가의 부장이 최우선인 공자의 가치관과는 위배된다. 또한, 승호리 철교차단 작전의 성공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1500피트까지 강하하는 작전, 대령 때 지휘관이 지휘와 통제에 집중하지 않고 아군의 사기진작을 목표로 직접 출격한 사건 등의 모습이 있다. 군인으로서 평가한다면 누구보다 멋지고 힘이 되는 술선수범형 리더이지만, 공자의 군사 개념에서 볼 때는 큰 위험을 동반한 것이 된다. 위의 사례들을 근거로 취합해보면 수단보다 국가와 공이 중요한 공자의 개념을 탈각하고, 국가와 공을 위하는 길에 수단도 중요하게 여기는 자신만의 신념을 확립했다고 생각하며, 이 신념을 후대에게 전하고자 이 책을 편찬하셨다고 확신한다.

결론적으로 다시 환기해보면 김신 장군의 유년부터 청년 시절 중반까지는 공자의 영향을 받은 행동 패턴을 볼 수 있었다. 그 이후에는

유교의 군사(軍師)개념에 자유, 평등 그리고 투쟁이란 가치를 더해 발전시켜 그만의 인격과 가치관을 형성했다. 그리고 김신 장군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신념과 군인으로서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고자 이 회고록을 남기셨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공군 장교로서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개인의 자기 계발적 입장에서는 자긍심, 전문지식, 헌신, 도전, 경쟁력, 팀워크, 자존심, 조국에 대한 충성 등을 가져야 한다. 조국에 대한 충성은 개개인의 신념을 하나로 모으는 중추이다. 위 글에서 배울 수 있듯이 전문지식은 모든 도전의 기반이고, 자존심과 경쟁력은 '나'를 성장시키는 거름이다. 그리고 팀원을 위해 헌신하고, 팀워크를 갖춘 자세는 나를 포함한 '모두'를 더 높은 곳에 발 디딜 수 있게 한다. 조직 혹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입장이 모여 국가의 자위, 국토방위, 국민, 생명, 인권 등을 지킬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이것들이 더 나아가 전쟁승리, 국익증진, 항공우주력, 영공방위 등을 이룰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 지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위의 성질들을 만족하는 부강한 국가의 존재는 전쟁을 억제하고, 세계 평화와 수호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무조건적인 수용 자세이다. 예를 들어 무조건적인 충성, 무조건적인 전쟁승리 등은 홀로코스트와 같이 매우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대는 과거와 달리 정보화 시대로, 정보 하나의 중요성과 이를 통한 가치 판단이 중요한 시대다. 또한 무력과 무력이 충돌하는 PCW에서 외교, 금력, 자원 등 모든 걸 통제하는 NCW기반 총력전으로 전쟁 양상이 진화했다.

그런 이유로 우리 장교들은 보다 넓은 견문으로 다양한 학식(學識)을 익혀야 하고, 교차검증을 통해 옳은 정보만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 과거의 비사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김신 장군의 의지를 이어받아, 앞서 언급한 자세와 마음가짐을 갖추고, 비판적 수용을 통해 올바른 결정을 할 줄 아는 장교가 될 것이다. 이런 의지들이 모여 '대한민국'은 궁극적 목적인 평화유지를 수호해 나갈 수 있고, 대한민국의 선의는 세상에 관철될 것이라 믿는다. 마지막으로 공군 장교의 표상을 책의 구절을 인용해 마무리 하겠다. 결연한 자세와 지기불가위 이위지(知其不可爲而爲之)의 마음으로 최후의 최후까지, 최후의 한 사

람까지.....

(장려) 필승! 이 간단한 경례가 갖는 무겁고도 숭고한 의미에 대하여

소속 : 소속 : 장교교육대대 학사사관후보생(148기)

이름 : 한 성 만

장교교육대대 창공관에 들어온 지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다. 공군의 실무자인 장교로 임관하기 위해 설레는 마음을 품고 입소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보래매의 시간은 빠르게 흐르는 중이다.

생활관에 들어와서 자리에 착석한 후, 푸른 표지의 동일한 책 두 권이 내 눈을 사로잡았다. 책을 들어보니 익숙한 인물의 사진이 인화되어 있었고, 나는 단숨에 이 인물이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님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대학시절, 역사교육을 복수전공한 경험이 있기에 최용덕 장군과 김신 장군 등 몇몇의 공군 장성은 눈에 익었기 때문이다. 백범일지는 학창시절 몇 번 읽어 보았으나 백범선생의 아들이신 김 총장님의 책은 처음 들어보기에 호기심을 가지고 책을 정독하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부터 역사와 정훈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빨려들 듯 책을 읽어내려 갔고, 부사관교육대대의 훈련중 '필승!' 경례소리를 들으며 책을 덮었다.

생활관 창문밖에서 들리는 우렁차고 간단한 이 경례를 들으며 과연 후보생들은 '필승!'이 갖는 상급자가 시키기에 그저 앵무새 마냥 따라하고만 있는 것인가 고민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고민에 대한 답을 김 총장님의 회고록이 내게 일깨워주었다.

이 회고록은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님의 인생을 구수로 전한 것 중 중요한 부분들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김 총장님은 백범 김구 선생의 둘째로 태어나 형님 김인과 할머니님 곽낙원 여사와 함께 산전수전을 함께 겪으며 독립운동가의 자손이자 나라 잃은 무국적자로서의 비통한 유년을 겪으셨다. 나라를 잃어 버린 것도 고통스러운데, 돈이 없어 학교에 입학하지 못할 뻔 하였고 수학여행을 가지 못해 꿈을 잃을 뻔 하였다. 또한 저명한 독립운동가의 가족이기에 임시정부에서 근무하시며 감시를 받기도 하시며, 조종사라는 꿈을 위해 중국 군관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인도와 미국을 거치며 광복 후 미국에서 비행교육을 이수한 유일한 한국인 조종사가 되셨다. 하지만 조종사의 꿈을 이루어 낸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었고 우리 땅과 민족을 공격해야 하는

참상을 겪으셨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주변 정치인과 군인들의 시기와 질투를 이겨 내고 공군의 수장인 공군참모총장으로 재임하시고 4. 19혁명과 5.16군사정변 이후에는 중국에서의 경험, 특히 중국국민당 정부와의 친분을 십분 발휘하여 주중화민국(타이완)대사를 지내며 국익을 위해 헌신하셨다. 대사로서의 활동 후에도 교통부장관, 국회의원으로 일하신 후 독립기념관 초대 이사장과 백범기념관 관장을 지내시며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선열을 위해 일생을 바치셨다.

이 같은 김신 총장님의 일생을 바라보니 총장님의 인생은 대한민국 근대사의 고난을 그대로 옮긴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다. 과연 나였다면 나라 잃은 국민으로 점령국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었을까?, 독립을 꿈꾸며 독립한 조국을 위한 조종사가 되어야 했다는 꿈을 꿀 수 있었을까? 하는 많은 생각에 잠겼다.

내가 공군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입대한 이유는 군사·안보적으로 공중, 우주, 사이버, 영역을 이용 및 통제하여 군사력 및 영향력을 투사하는 능력인 항공우주력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어 가기에 항공우주력을 담당하는 공군의 실무자로 국가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였다. 간단히 말하면 국가에 조금이나마 더 헌신하기 위해 공군으로 입대한 것이다. 하지만 나의 이유는 김 총장님의 의지와 꿈에는 한참 못미치는 것이었다. 언제 독립할지도 모르는 식민지의 조국을 생각하며 공군의 핵심 전투력인 전투기 조종사의 꿈을 가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 총장님의 회고록을 읽고 나는 우리나라 정예공군의 경례인 '필승'이 갖는 무겁고도 숭고한 의미는 '반드시 승리하여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하겠다.'는 의미를 지닌 것이다. 여기서의 승리는 비단 전쟁 뿐 아니라 공군인으로써의 일과, 훈련, 과제, 팀워크, 도전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어 우리 공군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국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김 총장님이 한국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 걸고 전투기를 몰며 '필승!'을 외치신 것처럼 모든 보라매들이 김 총장님과 같은 의지를 가지고 '필승!'을 외칠 때, 우리 공군은 영공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해본다.

(장려) 인생은 회전목가

소속 : 소속 : 장교교육대대 학사사관후보생(148기)

이름 : 김 다 령

“백범김구 선생님께 아들이 계셨습니까?”

‘조국의 하늘을 날다. 백범의 아들 김신 회고록’ 책의 제목만 보고 제가 던진 첫질문이었습니다. 부끄럽게도 김신선생님께는 물론이고 김구선생님께 사과를 드려야 할 만큼 두 분께 무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펼친 이유도 조종사 양성과정 중에 있는 형제에 대해 더 알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읽게 된 것입니다. 이러했던 제가 김선선생님을 롤모델로 삼아 인생의 목표를 정하기까지 단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책을 통해 김선선생님의 굳은 신념과 많은 활약상을 볼 수 있었지만, 세계 가장 다가왔던 건 장제스 총통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도고일척, 마고일장’, 의역하면 ‘선비의 수양이 한 자 높아지면 그에 따른 유혹은 한 길이나 높아진’는 뜻이기도 하고, 장제스 총통님의 의도는 ‘부패척결이란 없애기 어려운 법이니 여간 비상한 노력으로 애쓰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구절이 저에게 가장 와 닿았던 이유는 ‘상황과 지성을 막론하고 유혹에 흔들릴 수 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라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유혹을 막기 위해선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비상한 노력은 과오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한번은 어머님께서 인터넷뱅킹 이용에 어려움을 겪으시고는 저에게 같은 질문만 여러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똑같은 질문에 저도 모르게 짜증섞인 어조로 대답해버렸고 이는 곧 후회를 이어졌습니다. ‘어머님은 알고 싶으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을 계속 하셨던 것이었다고 친절하고 자세히 알려드렸다면 서로 기분상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을텐데’ 라는 반성과 앞으로 이런 상황에 부딪쳤을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의 프로세스를 정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정립했던 프로세스를 떠올리며 은행원같은 마음으로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느날부터 어머니께서 “신세대한테 배워가며 시대를 따라가야 해”라며 고맙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한번으로 끝내느냐 마느냐는 과오와 실수를 돌이켜보고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완벽한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완벽한 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실수로 남을지, 실수가 인생의 될 지는 본인이 선택하기 나름이다. 인생은 물레방아와 같습니다. 인생은 비슷한 선택이 돌고 도는 연속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어떤 선택을 하였는가보다 어떻게 선택을 하였는가, 다시 그와 비슷한 상황이 온다면 최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이는 일상 속 경험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경험이라도 어떤 학습의 자세를 취했는가에 따라 시선의 높이가 결정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의미부여와 성찰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본질에 접근할 수 있어야합니다. '나는 기필코 부패 척결하고말 거야. 유혹에 휘둘리지 않을 거야'라든 단순히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다짐만으로는 결코 완전척결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본질, 즉 '왜 부패·적패를 타도해야하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지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답을 찾아가야합니다. 이러한 사유를 통한 동기만이 어떤 시련과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게 해주는 내적동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찾았습니다. 각종 부패들은 개인의 실리만을 취하기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실리를 취함으로써 무엇이 희생되는지 모르면, 숲이 아닌 나무만을 보는 것입니다. 과연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면 채울수록 삶이 무한정 행복해질까요? 모든 걸 갖추었음에도 더 행복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때가 타자공헌의 행복을 이끌어내야 하는 타이밍이지 않을까요? 저는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만 된다면 그 이상은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과시'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놓음으로써 화려한 외면이 아닌 무소유의 내면을 갖는 것, 또한 같은 뜻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 견제적·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제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책을 통해 그 '도움'을 정의내릴 수 있었습니다. 김구 선생님께서 당신들의 신념을 확고히 하시고 국가의 안보와 대의를 위해 본인들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그 모습이야말로 제가 그리던 삶이었던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어떤 시련과 유혹에도 굴하지 않게 해주는 내적동기는, 사소한 경험과 일상 속 끝없는 의미부여와 그 의미를 깨우치고 받아들이려는 배움의 자세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과오를 저지르더라도 상황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그 상황 속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도를 취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내적동기만큼 의지를 끌어내는 동기는 없을 것입니다. 정제스 총통님께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무(無)의 상태는 불가능합니다. 부패의 원천을 뿌리채 제거하고 타도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지만, 냉정한 현실 세계에선 녹록치 않습니다. 하지만 강인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라면, 아들이 뭉쳐 국가를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목소리를 낸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선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추구함으로써 결국 얻는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또한 지속적인 자아성찰과 끝없는 사유를 통해 진정으로 추구하는 삶과 국가차원의 대의, 즉 안보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뜻의 사람들과 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내며 공군이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에 도달하기까지 한발 한발 최선을 다해 내딛을 것을 약속합니다.

(장려) 흔들리지 않음에는 이유가 있다

소속 : 소속 : 장교교육대대 학사사관후보생(148기)

이름 : 양 성 원

① 인간이 움직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밖에 나선 우리는, 그 나름의 발자취를 남기고자 이곳 저곳 정신없이 뛰어다닌다. 땀흘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속에는 여러 가지 원동력이 발현되고 있을 것이며 무엇을 위해 달리는지 무엇을 위해 외치는지는 그것은 자기 자신만이 알고 있다. 조심스레 숨겨 놓 각자의 인생관은 모두 그럴 듯하게 상이한데,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자기 자신을 밀어붙인다. 어떤 사람은 다른 이의 안정과 관심을 갈구 할 것이며, 또 어떤 이는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우리의 지각은 자신과 타인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듯하다. 같은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의 해석은 각자의 시선에 따라 그 의미가 풍부해진다.

② 본 책은 김신 장군의 생애를 통해 대한민국 현대사의 흐름을 잘 알 수 있는 책이다. 김신 장군의 생애를 살펴보기에 앞서 김신 장군의 시선을 통해 보이는 김구 선생의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김신 장군은 본 책에서 김구 선생의 방북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였다. ' 그 진심의 깊이를 시세의 잔물결로 평가할 수 없는 일이다.' 대의를 위한 삶은 매우 깊이 그 수심을 헤아릴 수 없다. 김구 선생은 1948년 6. 25 전쟁이 일어나기 전 김일성을 만나러 방북했다. 그 당시엔, 그 방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갔는데, 김구 선생의 이러한 방북이 당시의 정세나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이라 평했고 김일성에게 이용당할지도 모른는데 이상적인 신념 하나로 방북한 것은 순진한 발상이었다는 이야기들이 오갔다. 그러나 사사로운 의견 따위는 옳고 곧은 신념을 이길 순 없었다. 김구 선생은 일의 성패를 이리저리 따져보고 자신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와 같은 이득을 계산하며 진의를 가늠하지 않았다.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실리를 따지는 일은 수심이 얕은 행위라는 것임을 김구 선생은 잘 알았던 것이다. 이렇듯 김구 선생은 국가의 독립, 민족의 분단과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그 신념 하나로 다가오는 모든 시련에 결코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③ 김신 장군도 이러한 모습에 영향을 받아 자신에게 적용하였다. 그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김신 장군은 공군 참모총장에 즉위하고 난 후, 공군본부에 있는 사람들 중 공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이들을 다른 곳으로 내보냈다. 비행기 한 번 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공군의 실권을 장악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하자 주변에 있던 많은 장교들이 얘기하였다. "무슨 배짱과 무슨 배경으로 그렇게 합니까?, 다음에 어떤 보복이 갈지 모릅니다." 그러자 김신 참모총장은 "내 임기 최후의 5분까지 내 힘을 다 사용할 것이다. 임기 이후의 일을 걱정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 사사로운 의견은 옳고 곧은 신념을 이길 수 없다.

④ 김구 선생과 김신 장군은 자신의 삶을 이끌어 왔다.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였든, 그누가 뭐가로 하든 대의를 위한 자신의 믿음 하나로 그렇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평생을 살았다. 이러한 김구 선생과 김신 장군의 살아온 삶의 태도는 요즘 나에게 요즘 젊은이들에게 꼭 필요한 마음가짐인 것 같다. 본래 얕은 수법은 수면에 일찍 드러나게 되어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눈, 커뮤니티 등의 영향으로 자신의 신념과 가치가 쉽게 훼손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다른 이들과 비교하게 되고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무엇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각종 전략과 기법을 사용하는데, 김구 선생과 김신 장군이 살아온 삶의 태도와는 매우 상이하다. 다른 이에게 흔들리고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임을 나는 이제 안다.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은 강인함을 잃게 되고 서로간의 불신을 낳는다. 책임감을 갖고, 자기 자신의 삶을 개척해야 함을 이 책은 명시하고 있다. 우리의 행동은 자신의 의사결정을 통해 만들어져야 하고 언행일치, 겸손, 정의, 충성과 같은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며 결코 주변 여건에 의해 좌우되지 말아야 한다. 김구 선생과 김신 장군의 모습처럼 말이다.

⑤ 김신 장군은 광복 전 여러나라를 돌아 다니면서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것은 나라가 없는 슬픔이라고 하였다. 국적이 없었기에 다른 나라로 떠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조종사가 될 수 없었을지도 몰랐다고 하였다. 당연한 것들에 대해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태도는 대단히 중요한 것 같다.

나는 장사를 하는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개인 사업체를 도와 어려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왔다. 그러다보니 이른 나이에 싸움도 많이 겪어보고 사람에게서 상처도 많이 받았다. 이러한 영향으로 지금의 나는 사람을 신뢰 하는데에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하고, 이득과 손실이라는 개념에 너무나도 익숙해 내 안위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을 쓰곤한다. 철저하게 계산적인 삶을 살아왔기에, 내 실리를 위해서 또는 경제적인 성취만을 위하여 이기적인 마음을 품었던 일도 정말 많았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까지의 내 삶은 소위 '얕은 수면의 삶'이었다고 깨닫게 되었다. 수심이 너무 얕아 그 의도를 파악하기가 매우 쉽다는 것이다.

⑥ 나는 더 깊은 수심으로 향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훈련 6주차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 나는 느낀점이 너무나도 많다. 제식부터 사격까지 정말 하나도 쉬운 것이 없었고 강한 정신력과 높은 집중력을 가져야만이 이러한 훈련들을 잘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나는 잘 못하고 감점당하는데 나에 비해 월등히 훈련을 잘 받는 동기들도 많았고 교육사항을 이행하지 못해 소대장님들에게 혼이 날 때도 많았다. 나는 그럴때마다 내 자신에게 실망을 많이 했다. 그러나 나는 군인이 될 사람이고 군대의 기강인 장교가 될 사람이다. 아직 임관을 하지 못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책을 통해 느낀 백범 선생의 애국애족 정신과 대의를 위한 희생정신 그리고 김신 장군의 공군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은 내가 이 고난과 힘들음을 이겨낼 것임을 암시한다. 김구 선생과 김신 장군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진정성 있는 정의로운 신념은 반드시 빛을 발할 것이라고 믿는다. 나의 승리만을 위함이 아닌 서로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생각할 것이며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여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 할 것이다.

⑦ 모두가 끝을 향해 움직인다. 문밖에 나선 우리는, 결국 안락한 집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무엇을 위해 달렸는지 무엇을 위해 외쳤는지 걸어온 그 길 속에 고즈란히 남아있다. 나에겐 주어진 이 한번뿐인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